

# 돈줄 막힌 사장님, 은행 문턱 닿도록...

## 광주·전남 예금은행 1~3분기 산업 대출 4조 돌파 '역대 최대' 운전자금 2조4511억 전년비 120.8% 급증...비중 절반 넘어

회사채 시장 위축으로 돈줄이 막힌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 등을 찾으면서 올해 3분기 말 기준 광주·전남 예금은행 산업 대출금이 4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나타냈다. 특히 인건비와 재료비 등 운전자금 대출이 1년 전보다 120% 넘게 뛰었다.

단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3분기 산업 대출 증가 폭은 둔화했다.

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광주·전남 예금은행 산업 대출금은 4조

1379억원으로, 1년 전보다 80.5%(1조8449억원) 뛰었다.

이는 관련 통계를 낸 2008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1~3분기 기준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산업 대출금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1조2066억원에서 이듬해 3조920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2조2930억원)에는 대출 증가 폭이 줄었지만, 올해는 전년비 1.8배 수준인 4조1379억원으로 급증했다.

은행 산업 대출금이 올해 들어 부쩍 늘어난 건 운전자금 대출이 많이 늘어난 영향 때문이다. 1~3분기 광주·전남 예금은행 운전자금 대출금은 2조 4511억원으로, 1년 전(1조1101억원)보다 120.8%(1조341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설비 투자를 위한 시설자금 대출금은 1조1829억원에서 1조6868억원으로, 42.6%(5039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1~3분기 기준 예금은행 신규 산업 대출금 가운데 운전자금 비중은 59.2%로, 지난해 같은 기간 비중(48.4%)과 비교하면 10.8%포인트나 늘었다.

한은은 지난 2일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자료를 내려 "산업 대출은 그동안 가계대출보다 규제가 덜한 데다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면서 기업

대출이 확대됐다"며 "여전히 기업 대출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에서 올해 들어 운전자금 대출 수요가 늘어난 산업은 부동산업과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올해 광주·전남 예금은행에서 부동산업 신규 운전자금 대출금은 2881억원으로, 1년 전(1801억원)보다 60.0%(1080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의 오랜 부진의 늪에 빠진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운전자금 대출금은 지난해 136억원에서 올해 487억원으로, 258.1%(351억원) 뛰었다.

이외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29.4%(316억원→409억원), 운수·창고업 26.6%(379억원→480억원) 등도 운전자금 대출이 늘었다.

숙박·음식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

의 영향에 따라 운전자금 대출이 지난해 1~3분기 876억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554억원으로, 36.8%(-322억원) 감소했다.

제조업의 경우 광주는 환율 상승 및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운전자금 증가 폭이 커졌다. 광주는 전년비보다 33.1%(834억원) 늘어난 3356억원으로 집계됐지만, 전남은 지난해 말보다 대출금이 1038억원 빠지면서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한편 광주·전남 예금은행 산업 대출은 금융기관의 기업 대출 태도가 강화되고 그동안의 대출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3분기 증가 폭이 축소됐다.

산업 대출금을 분기별로 보면 1분기 1조3668억원→2분기 2조1625억원→3분기 608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3분기 신규 대출은 전분기보다 71.9%(-1조5539억원) 급감했다. /백희준 기자 bhj@

## 물가 상승세 숨 고르기...7개월만에 5%대로 하락

### 11월 광주 5.0%·전남 5.3%...전월비 0.8%p 내려

전남지역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개월 만에 5%대에 접어들며 지역 물가 상승세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4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광주 5.0%·전남 5.3% 상승했다. 전달보다는 광주와 전남 두 지역 모두 각각 0.8%포인트 내려간 수치다. 같은 달 전국 물가 상승률은 5.0%로, 한 달 전보다 0.7%포인트 낮아졌다.

전남 물가 상승률이 5%대로 내려간 건 지난 4월(5.5%) 이후 7개월 만이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된 체감물가가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이 두 지역 모두 5%선으로 내려갔다.

광주 생활물가는 1년 전보다 5.8% 올랐는데, 이는 전달보다 1.0%포인트 내린 수치이지만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강원·경북과 함께 가장 높았다. 전

남 생활물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과 같은 5.5%로 나타났다.

11월 지역 물가가 대폭 내려간 데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영향이 컸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광주 2.7%·전남 0.5% 올랐다. 이는 한 달 전 상승률(광주 8.2%·전남 4.5%)보다 크게 내려간 수치다.

단 외식물가를 포함한 개인 서비스와 전기·수도·가스 요금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1년 전보다 광주 23.7%·전남 20.8% 올랐다.

두 지역 전기요금은 지난해보다 18.6% 올랐고, 도시가스 요금은 광주 35.7%·전남 34.5% 상승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전달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외식물가는 1년 전보다 광주 7.7%·전남

9.0% 올랐다. 전달 상승률(광주 8.2%·전남 9.8%)보다는 다소 낮아진 수치다.

전남 외식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9.0%)부터 5개월 연속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석유류는 광주 3.8%·전남 9.0% 올랐는데, 전달(광주 8.6%·전남 14.8%)보다 상승률이 낮아졌다. 이는 휘발유 가격이 1년 전보다 광주 6.9%·전남 6.2% 내린 영향을 받았다.

반면 금융(광주 48.1%·전남 51.1%)과 경유(광주 19.8%·전남 20.4%), 부탄가스(광주 50.6%·전남 36.7%) 등은 오름폭이 컸다.

기획재정부는 통계 발표날 분석 자료를 내고 "배추·무 등 채소류 중심의 농산물 수입 여건 개선으로 물가 상승 폭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서민 생활과 직결된 생활물가지수의 가격 오름세가 큰 폭 둔화한 것이 긍정적인 신호"라고 풀이했다.

한국은행은 같은 날 회의를 열고 내년 초까지는 물가가 5% 수준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 임박... '뉴삼성' 비전 관심

삼성전자가 이번 주 사장단 인사와 임원 인사, 조직 개편을 순차적으로 단행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취임 후 처음 단행되는 인사인 만큼 '뉴삼성' 비전을 구체화하는 메시지를 담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르면 5일 또는 6일 사장단 인사를 하고, 이어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을 순차적으로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달 중순에는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고 내년 사업계획을 논의할 전망이다.

작년에는 12월 7일 사장단 인사, 9일 임원 인사, 21~22일 글로벌 전략회의의 순으로 실시됐다. 이미 이달 초부터 퇴임 대상 임원에게 개별적으로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그룹 안팎에서는 '한중회-경계현' 투톱 체제가 구축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 작년처럼 큰 틀의 변화를 꾀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글로벌 복합 위기로 대부분의 기업이 주요 최고경영자(CEO)를 유임시키고 안정 속 혁신을 꾀하는 데 인사의 방향을 짚은 만큼 삼성전자도 이 같은 기존의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사장단 인사는 10월 돌연 사임한 이재승 전 생

활가전사업부장(사장)의 후임 등을 골라주려는 소폭 인사가 예상된다.

대신 부사장급에서 능력 있는 30~40대 젊은 리더가 대거 발탁될 가능성이 크다.

작년에는 부사장·전무 직급을 통합해 부사장 이하 직급 체계를 부사장·상무 2단계로 단순화하고 30대 상무 4명, 40대 부사장 10명을 포함해 임원 198명을 승진 발표했다.

올해도 직급과 연차와 관계없이 성장 잠재력을 갖춘 인물을 다수 발탁할 것으로 보인다. 임원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삼성 내 전문경영인 출신 첫 여성 사장이 나오지도 못한 포인드. 아직 삼성에서 오너 일가가 아닌 여성 사장이 나온 적은 없다. 최근 5년간 삼성전자 여성 임원 비율도 6%대에 불과하다.

삼성 내 첫 여성 사장 후보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영희 삼성전자 부사장 등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두 번째 여성 부사장으로, 2012년 승진해 10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그룹 컨트론타워는 이번엔 복원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연합뉴스



신(新)광은명장 시상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가운데)이 최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연간 '신(新)광은명장' 시상식을 열고 올해 후반기 '세일즈 명장'과 연간 '광은명장' 대상자 총 63명을 시상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新)광은명장'은 직원의 영입활동을 신뢰성 있는 지수로 평가해 포상·격려하는 광주은행의 특색있는 제도이다. <광주은행 제공>

### "가장 부담되는 규제는 고용·노동"

중기 10곳 중 4곳 "규제로 경영애로 경험"

중소기업 44.6%는 규제에 따른 애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담되는 규제는 고용·노동 분야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진공이 지난 8~9월 중소기업 35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44.6%는 규제에 애로 사항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기업에 가장 부담이 큰 규제로는 고용·노동 분야 규제(15.6%), 기술 개발·사업화 (11.6%), 환경(7.4%), 세제(6.1%) 순이었다.

규제 혁신을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는 비용·행정 부담 완화(31.4%),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27.7%), 덩어리 규제·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18.0%) 등을 꼽았다.

또 절반 이상(55.1%)은 규제에 신규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고 주된 요인은 법률·정책상 명시된 사항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31.0%), 중복된 행정규제 부담(25.0%), 적용기준 미비로 인한 제품개발과 시장 진입 불가능(23.0%) 등을 꼽았다. /백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날아간 '年수출 7천억달러'의 꿈

### 15대 품목 올해 증가폭 둔화 선박 등 5대 품목 '마이너스'

■ 로또복권 (제1044회)

당첨 번호						2등 보너스숫자	
12	17	20	26	28	36	4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3,136,941,235	8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58,091,505	72
3	5개 숫자일치					1,610,547	2,597
4	4개 숫자일치					50,000	134,226
5	3개 숫자일치					5,000	2,254,796

올해 11월까지 15대 주요 수출품목 대부분의 누적 수출액이 작년보다는 성장했지만, 증가폭은 크게 둔화되면서 연간 수출액 7000억달러 돌파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선박, 무선통신 등 5개 품목은 작년 수출 실적을 밑도는 마이너스 성장폭을 받아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1월 반도체, 선박, 자동차, 석유제품 등 15대 주요 수출품목의 누적 수출액은 4906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4559억달러)보다 7.6% 증가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15대 품목이 모두 전년 대비 성장했지만, 올해는 10개 품목만 수출이 늘고 나머지 5개 품목은 작년부터 쪼그라들었다.

특히 선박은 누적 수출액이 작년보다 26.8% 감소한 158억달러에 그쳤다.

선박은 지난해의 경우 1~11월 수출액이 전년 대비 27.1% 성장하며 200억달러를 돌파했었다. /백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연합뉴스

지난해 같은 기간 48.8% 성장하며 174억달러에 달했던 무선통신 수출액도 올해는 8.0% 감소한 160억달러에 그쳤다.

작년에 14.2%의 성장률을 보였던 섬유(113억달러)는 올해 2.5% 감소했다.

가전(75억달러)과 컴퓨터(149억달러)도 지난해에는 20% 이상 성장했지만 올해는 5.4%와 1.5% 각각 감소했다.

올해 누적 수출액이 증가한 나머지 10개 품목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축소됐다.

반도체는 지난달까지 1202억달러를 수출하면서 4.3% 늘었지만, 28.4%의 성장률을 보였던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크게 꺾였다.

올해 자동차 수출(487억달러)도 15.3% 성장했지만 작년(25.0%)보다 증가율이 10%포인트 상당 하락했다. 석유화학(0.7%)도 성장률이 50% 포인트 정도 하락했고, 석유제품(70.0%)과 철강(8.7%)도 증가폭이 각각 14.5%, 27.1%포인트 줄었다.

당초 우리나라는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6445억달러)을 세우며 올해 연간 수출액 7000억달러대 진입을 기대했다. /백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연합뉴스



## 광주상의, 광주고용전문가아카데미 수료식 열려

광주상공회의소는 최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7기 광주고용전문가아카데미 제7차 교육 및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제7차에 걸쳐 진행된 '광주고용전문가아카데미'는 광주시와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이 주최하는 광주지역 혁신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고용·노동시장 현황과 일자리 정책에 관한 이론적 학습 및 사례공유를 통해 고용서비스 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은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내 고용률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교육과정으로는 일자리지표 통계분석, 탄소중립과 미래사회 변화, 전국 일자리 우수사업 파악, 인력·훈련수요 기반 지역 인재 양성 방안 등

다양한 고용·노동 현안을 주제로 커리큘럼을 구성·운영했으며, 민선8기 출범 이후 변화된 고용 및 일자리 정책 방향을 학습하고 광주시 산업전반을 이해하는 '광주일자리 정책 구상 방향', '광주 산업정책 동향' 강의는 참여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 호남지역 맞춤형 일자리정책 아이디어 발굴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호남권 역량강화 아카데미'를 전남, 제주와 공동 추진했고, 오프라인 강의 정취가 어려운 수강생들을 위해 온라인 강의를 제작·공유하기도 했다. 호남권 일자리 사업 관계자들의 긴밀한 네트워킹을 위한 통합 워크숍도 추진했다. /백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